

민주 경선 격차 좁혀진 이재명·이낙연 경쟁 격화

민주 지지층 지지율 46% 대 42% 이낙연 측, 이재명에 화력 집중 구도 급변 후발 주자들 속내 복잡 상호 연대·비판 가세 전선 복잡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이낙연 후보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독주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몇몇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전체 경선에도 긴장감을 주고 있다. 특히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당 내에서는 경선 흥행 가능성이 크다며 반기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9일 발표한 대선 적합도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는 46.1%, 이낙연 후보는 42.2%의 지지를 받았다. 2주 전 25.7%포인트에 달했던 두 후보 사이의 격차가 오차 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내로 좁혀졌다.

크게 고무된 이낙연 후보 측은 '골든 크로스'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를 향한 총력 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특히 경기도 유관기관 공무원 진보씨의 'SNS 비방' 의혹을 정조준했다. 캠프에서는 수사기관 고발까지 거론된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박광은 의원은 라디오에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떠올랐다는 의견이 많다"며 "진짜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경선 과열을 막기 위한 6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면서 "선

거법과 경선규칙을 엄격히 준수하자"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일단 직접적인 정면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진씨와의 직접적 연관관계를 부인하면서 국면 전환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진씨는 과거 김경수 경남지사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며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임명하고 관리감독한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좁혀진 지지율 격차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늘어난 민주당의 파이가 이낙연에게 간 것"이라며 "네거티브 중심으로 선거전이 이어지면 늘어난 전체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선 구도가 급변하면서 후발 주자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모습이다. 사안별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상호 연대나 비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전선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날 이른바 '군필 원팀' 공세에 반발하며 이재명 후보의 편에 섰던 김두관 후보는 이 후보의 사의 표명에 "제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이 몰려오고 있어 오히려 제가 덕을 본 셈"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추미에 후보를 향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를 제대로 못 하고 대권후보로 키워준 책임이 크다"며 "추 후보가 출마까지 하는 바람에 윤석열 검사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후보는 이날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싸잡아 겨냥해 "불안한 후보, 그저 그런 후보, '세금 물 쓰듯 정책'을 남발하는 후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의 경제공약을 두고 "추상적이고 알맹이가 없다. 기본소득이 사라지듯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안간다

靑 "소마 공사 망언 용납 어려워" 황희 문체부 장관 개막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 기간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추후로 미뤄지게 됐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눴다"며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언급한 '그 밖의 제반 상황'에는 문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소마 히로미 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성적(性的)인 표현 파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서면 문답에서 소마 총괄공사의 발언 파문과 관련해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늘 일본 관방장관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발표한 것에 주목한다"며 "일본 정부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하고, 향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상회담 개최 및 실질적 성과 도출"이라는 한국 측의 조건에 대해 일본 측이 전폭 수용하지 않은 점도 문

대통령의 방일 및 한일 정상회담 무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리와 전화 통화, 화상으로 열린 다자 정상회의 등을 통해 소통한 바 있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한일 현안을 논의한 적은 없다. 지난달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스가 총리와 만난 바 있지만 짧은 대화를 하는 데 그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이 한일 정상이 만날 좋은 기회로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크다"며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계속 일본과 대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정부 대표단 대표 자격으로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27.1%·윤석열 19.7%·이낙연 14.6%

코리아리서치 대선 선호도 조사 양자대결 이재명·이낙연, 윤 이겨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장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모두에게 밀린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지난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양자 대결에서 이 지사는 44.0%, 윤 전 총장은 34.9%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는 9.1%포인트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밖이다.

이 지사는 윤 전 총장 외에 야권 대권주자 누구와 맞붙더라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의 양자 대결에선 이 지사가 46.8%, 최 전 원장이 25.3%의 지지를 얻었다. 이 지사와 홍준표 의원이 맞붙을 경우 각각 49.1%, 23.9%로, 역시 이 지사가 우위였다.

여권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일 경우엔 이 전 대표가 41.5%, 윤 전 총장이 37.8%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나타냈다. 두 주자는 앞서 지난 14일 발표된 한길리서치 조사(지난 10~12일)에서도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인 바 있다. 당시엔 윤 전 총장이 이 전 대표를 5.0%포인트 앞섰다.

이 전 대표는 최 전 원장 및 홍 의원의 양자 대결에서는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다. 이 전 대표와 최 전 원장은 각각 45.2%, 25.3%,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은 각각 45.8%, 26.6%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여야 전체를 아우르는 다자 구도에선 이 지사가 27.1%로 선두였고, 윤 전 총장(19.7%)과 이 전 대표(14.6%)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최 전 원장(4.8%)이 '마의 장벽'이라 불리는 5% 선에 근접하며 4위에 올랐고, 홍 의원(3.9%), 추미에 전 법무부 장관(2.9%),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2.8%), 정세균 전 국무총리(1.3%), 유승민 전 의원(1.1%) 순이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광주시-민주당 대선 공약 발굴 무산 선관위 "선거법 위반" 제동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대선 공약 발굴 작업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무산됐다.

19일 민주당 광주시당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시당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대선 공약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팀을 구성하

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팀 구성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건의했고, 시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선 공약을 미리 발굴해 내년 대선에 반영하려는 취지였다. 이 시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후 시와 시당은 각 의원실 보좌진 1명,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팀 구성에 착수했으나,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에만 내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당은 협의팀 구성을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다. /최권일 기자 cki@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